

구역공과 제3권 (1단원 : 천국 시민이 받을 복) (제3과) 온유한 자의 복

- 본문 : 마태복음 5:1-12
- 요절 :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마 5:5)
- 찬송 : 360장(새 찬송가 324장), 13장(새 찬송가 64장)

공과내용

이 세상에는 물리적인 힘을 가진 강자가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억누르며 지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서와 양심을 지키며 살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더 많은 이익과 권리를 확보하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고 선포하셨습니다. 자못 역설적으로 들리는 주님의 이 가르침은 진정한 강자와 승자가 누구인가를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1.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복종하는 자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 인데, 사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잘 길들여진 짐승이나 주인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종의 자세를 지칭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온유함을 보여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히 11:8), 또한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에도 그는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유함의 극치를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동일한 육신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더구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였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둔 시점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 26:39)라고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기뻐하여 기꺼이 자기의 뜻을 버리고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 나아가는 온유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공손과 인내로 대합니다.

성경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시 37:8),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 16:32)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온유한 사람은 분을 품거나 노를 발하는 것을 피합니다. 그 대신 공손하고 친절 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며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범한 과실과 허물에 관해서도 너그럽게 용납하며 오래 참아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온유함을 모세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광야 길로 인도할 때 그는 마치 부모가 젖먹이를 품에 품고 보살피듯이 자기 백성을 위해 신명을 바쳐 헌신하

였습니다. 그런데도 목이 곧은 백성들은 그의 수고를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의 배은망덕을 탓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놀라운 온유함을 나타내었으므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민 12:3)는 성경의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얼마나 온유하신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심문을 받으실 때에도 죄없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벧전 2:22~24).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 11:29)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과 친절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포용하는 온유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주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37편 11절에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고 하심으로 온유한 자가 차지할 궁극적인 복이 무엇인지 일깨워 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은 커다란 당혹감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를 압제하는 온유치 못한 자가 오히려 땅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먼저 이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은 심령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단 한 평의 땅을 갖지 못할지라도 온유한 자는 주님 안에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안정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이 말씀은 장차 성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될 것을 언약하신 것입니다(계 21:1). 그 때에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 25:34)는 말씀을 듣고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강포한 자나 사악한 자나 탐람한 자는 결코 기업을 얻을 수 없으며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우는 처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하신 주님’ 을 본받아 언제 어디서나 ‘온유한 자’ 로서 살아가므로 온유한 자를 위해 예비된 풍부한 화평을 즐기며 살다가 드디어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 타고난 성품이나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로서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라야 맺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웃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므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땅’ 을 기업으로 받는 온유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